

# 문학동네 수년째 적자...도매 공급률 63%로 인상

침체의 늪에 빠져든 출판계가 문학서 도매 공급율을 3%포인트 올리는 등 자구책을 들고 나섰다.

출판사 문학동네는 11일 SNS에 “문학서 공급률을 기존 60%에서 63%로 인상했다”며 “온라인서점의 공급률을 올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매 공급률을 올려야 했다”고 밝혔다.

도서 시장에서 공급률이란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책값을 정가 대비로 표시한 비율이다. 즉 문학동네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정가 1만원의 소설 한 권을 6000원에 도매상에 넘겼는데, 이제 6300원을 받고 넘기겠다는 것이다.

대신 인문서는 기존 70%에서 68%, 학술서는 75%에서 73%로 낮췄다. 인문서는 또 팔다가 남더라도 반품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한데 돌아서는 매절도 없었다.

### 인문서 70%→68% · 학술서 75%→73%로 낮춰

그동안 공급률은 통상 70% 안팎이 적용됐다. 책 구매량과 판매량이 많은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은 평균 60% 안팎의 공급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경영 악화에 따른 공급률 인상을 요구해왔다. 도서 할인폭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인터넷 서점 등의 이익이 늘면서 출판사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문학동네 역시 이번 문학서 도매 공급률 인상에 대해 “신규 공개채용을 지난 3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고, 수년째 지속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동계서점

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학동네는 하지만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의 공급률 인상이 주 목표”라며 “그런데 도매 유통사의 공급률을 인상하지 않고는 온라인서점의 공급률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온라인서점의 공급률이 도매서점들보다 높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면 온라인서점은 출판사와 거래를 포기하고 도매서점에서 책을 가져다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문학동네는 “그렇게 되면 출판사는 대부분의 책을 도매서점 공급률인 60%에 판매하는 결과가 된다”며 “출판환경은 더욱 악

화되고 질 낮은 출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러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작가발굴 등 일체의 투자를 포기하고 저비용으로 버티는 질 낮은 출판의 길을 걷는다. 아니면 책값을 대폭 올려서 소수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으로 버티느냐의 선택지만 남게 된다”며 “저희가 공급률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학동네는 도매서점과 공급률 인상안 협의를 제안했으나 응한 곳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동네의 이번 결정이 다른 출판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단행본 출판사들의 연합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2월 인터넷서점에 상생공급률 권고안을 보내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 고창 문화의전당 전통·서양음악 조화 오늘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고창문화의전당에서 12일 오후 7시 30분 아리랑과 판소리, 전통무용 등과 같은 한민족의 정신과 얼이 담긴 음악을 외국인 연주자들의 연주와 명창의 협연 등의 색다른 형태로 감상 할 수 있는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선보인다.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다국적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연 레퍼토리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기곡 또는 대표적 전통음악인 판소리, 민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고창 공연에는 지난 해 '제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정수인 명창, 1978년 '시와 의식'으로 등단해 '일어서는 돌(1994)', '꿈아 꿈아(2013)',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등의 저서를 지은 통유리의 시인 진동규, 사)판소리보존회 고창지부(지부장 김옥진), 그리고 예약사상을 본받아 예외 음악을 춤으로 승화시켜 전통예술의 참 맛을 찾아가는 단체인 전통음악원 누리춤(대표 이종규) 등이 협연자로 나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번 무대는 고향, 정겨움, 애달픔, 희망의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드야', '반달', '엄마야 누나야', '수선화'와 같은 음악과 '새타령', '진도아리랑', '심청가' 중 한 대목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고창문화의전당 관계자는 “한국 전통음악곡을 새롭게 편곡해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 서로 융합하고, 그것을 통해 관객들을 화합시키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이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culture.goc.kr>)나 문화의전당(063-560-8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 내일 옛 사진 특별전

### 개관 14주년 기념행사

개관 14주년을 맞이한 전주역사박물관이 기념행사를 갖는다. 전주역사박물관은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기념식과 함께 전주 옛 사진 특별전 '시간과 공간 스토리'와 제 18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음식의 문화적 토대'를 각각 연다.

전주 옛 사진 특별전은 근현대를 거치며 변화된 전주의 지취가 담긴 사진을 통해 전주풍경과 전주사람들을 추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07년 전주 옛 사진을 전시한 이후 새롭게 발견한 전주사진을 정리하여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전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후까지, 전주의 시대별 모습이 담긴 100여점의 사진이 도시경관, 한옥마을, 문화유산, 한지와 부채, 전주사탑들 등으로 나누어 전시된다.

먼저 최근 동국사에서 처음 발견된 전주성 서문사진은 전주의 옛 모습과 도시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사진이다. 이는 1907년경 촬영된 전주부시가 전경 엮서사진으로 한가운데 서문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사진은 패서문의 형태가 담긴 유일한 사진으로 서문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성벽이 나타나 있어서 전주성 4대문 및 성벽 복원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록사진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 우측으로는 전라감영 선화당의 측면이 나와서 감영복원에 도 큰 가치를 지닌다. 사진은 동학군이 잘려나가지 않은 전주 객사(종패지관)도 온전하게 담고 있다.

또한 1930년대 전반 전주시가전경은 전주부로 승격되기 전인 전주군 전주읍 일대의 모습을 담은 엽서사진으로 전통성당 일원에서 다가고 너머까지의 전주 시가지 전경을 담았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가 담겨 있는 남고산성의 전경사진을 비롯해 한벽당 아래 전주천에서 한지통을 놓고 종이를 뜨던 1960~70년대 한지·부채 제작사진도 전시된다.

이와 함께 전주에 고유의 음식문화가 발달하게 된 기반과 그 문화적 토대를 규명하고 전주음식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도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에서 연달아 진행된다. 이날 학술대회는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숙정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이 '전주지역의 절임저장음식:장아찌의 종류와 이용, 그리고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100년 전 근대 전주의 음식문화 토대와 역사적 물산지리 고찰'을, 박재민 세계김치연구소 연구개발본부장이 '전주의 김치관련 문화자원과 유용화 방안'을, 송화섭 전주대학교 교수가 '전주 남문 밖 장시음식이 전주음식문화에 미친 영향'을, 김해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주 제례음식의 문화적 특성'을 주제로 각각 논한다.

토론회로는 고경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차경희 전주대학교 교수, 김영농 춘천진흥국립농업과학연구원, 이영은 원광대학교 교수, 송영애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 연구교수가 나선다. 종합토론 좌장은 함한희 전북대 교수가 맡았다.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은 이번 특별사진전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전주에 대한 오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전주의 역사와 가치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정해은 기자



동국사에서 처음 발견된 전주성 서문사진.

##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소리프론티어 본선팀 확정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우리전통음악을 재해석·재발견 해내는 예술가를 발굴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 '소리프론티어' 공개실연 예선이 지난 8일 오후 7시 서울 롯데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열렸다.

올해 소리프론티어는 젊은 세대 및 일반 관객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서울 흥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무대에는 소리프론티어 공모에 지원한 총 48개 팀 중, 1차 서류 및 음원 심사 관문을 통과한 6개 팀이 참여해 12분간의 공연을 릴레이로 선보였다.

소리프론티어는 국악 관련 기관 및 방송 관계자, 대중음악평론가, 전문 기자 등 국내 월드뮤직 및 공연예술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 8인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 3팀과 벨로주 공연 2팀을 선발했다.

음악성과 창의성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된 세 팀은 한국음악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4인조 제즈그룹(동량박사), 전통음악의 혼과 정서를 음악에 담아 연주하는(박종성 앙상블K), 유럽의 악기들과 한국적 소리의 조화를 보여주는(두 번째 달)이다.

세 팀의 무대는 오는 10월 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소리프론티어 본선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날 본선 무대에서는 최종 순위가 가려지며, 1등 팀인 KB소리상 수상팀에게는 일천만원, 2등상인 소리축제상 수상 팀에게는 오백만원, 3등상인 프론티어상 수상 팀에게는 각각 삼백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제2 앤 월드뮤직 페스티벌과 대만국제예술중심 관계자가 각각 축제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해 각 페스티벌에 초청할 팀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소리축제는 공개실연예선 무대에 오른 팀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공개 실연 예선에 오른 6개 팀 중 흥대 벨로주 무대에 설 두 팀을 선정, 모든 공연 제반 비용을 제공한다. 벨로주 공연 혜택은 '누모리'와 '박종성 앙상블K'에게 돌아갔다. /정해은 기자

## '박애리 팝핀현준과... 국악콘서트' 정읍 공연 700여 명 찾아 '성황'

'박애리 팝핀현준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가 지난 9일 모두 700여명의 시민들이 찾은 가운데 정읍시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시가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는 수준 높은 참원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 연주와 함께 유명 국악인 박애리와 유명댄스 아티스트 팝핀현준이 출연, 많은 호응과 환호 속에 신명나는 국악콘서트를 펼쳤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추천 우수작품 초청공연 일환으로, 지역 소외계층 초대석 190석을 제외한 유료티켓(413매)이 매진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공연은 지난해 열린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토크쇼'에 이는 두 번째로, 앞으로도 규모 있고 수준 높은 작품을 계속 준비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2편씩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연은 9월 3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서울타악 앙상블' 공연 놀자 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12일>

<p><b>▷쥐띠</b> 46년생: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라. 60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2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을 주의하고 자중하라.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는 운이니 투자가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p>	<p><b>▷소띠</b> 49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61년생: 다른 사람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73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이득이 생기니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 운이 막히는 것이다. 85년생: 실력 있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할 때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기·오·수씨는 상대를 너무 믿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볼이 좋을 듯. 62년생: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착신할 것. 74년생: 기혼자라면 배우자를 위로해 주는 아량을 가져라. 8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좋은 결과 있겠다.</p>	<p><b>▷토끼띠</b> 51년생: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63년생: 고생했던 일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는 좋은 운. 75년생: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미리 준비가 필요할 때.</p>
<p><b>▷용띠</b>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뒷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뒷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b>▷뱀띠</b>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65년생: 소외된 사람에게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나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 하는 운이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라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p>	<p><b>▷말띠</b>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p>	<p><b>▷양띠</b>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 79년생: 소화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라.</p>
<p><b>▷원숭이띠</b> 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다. 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 92년생: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b>▷닭띠</b> 57년생: 눈앞에 다가온 일부터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기. 69년생: 처음에는 곤란하고 힘들다 나중에는 좋은 결실을 맺으니 노력하라. 81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93년생: 앞으로 나이가 많아 지니.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p>	<p><b>▷개띠</b> 46년생: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라. 58년생: 지나친 욕심을 화를 부르는 주의하라. 70년생: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p>	<p><b>▷돼지띠</b> 47년생: 손 뒷사람의 건강에 신경써야. 59년생: 감형적인 주변의 상황으로 일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다. 71년생: 혼자 행동하면 주변 사람의 원망을 사게 된다. 83년생: 홀로 고민하는 것보다 주변에 알려라.</p>